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옥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

-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과

윤 수 정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

-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

이 옥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과

윤 수 정

인 준 서

윤수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의 수준과 우울감(depression)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perceived social support)과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그들의 우울감에 어떻게 보호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유학생, 해외 이민자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부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총 14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총 4개의 표준화된 질문지 방식의 심리척도에 응답하였다.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첫째, 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정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여가활동 여부, 해외거주기간, 부모님 동거 여부에 따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 중 민족적 배경과 관련된 사회적 스트레스, 가족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1%에서 우울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에 대하여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 중 비자나 체류의 문제 및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이성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낮은 우울감을 보이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주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중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과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우울감에 조절 효과를 주고 있어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교내외 이문화수용 프로그램과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비롯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에 대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우울감 이외의 다른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후속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7
II. 이론적 배경	9
1) 이문화수용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9
2)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	16
3)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17
4)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20
5) 국제학교	21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대상	24
2. 측정도구	24
1)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척도	25
2)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척도	26
3)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척도	28
4) 우울감 척도	29
3.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31

IV. 연구 결과	32
V. 논의	62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26
<표 2>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척도의 신뢰도	27
<표 3>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28
<표 4>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	29
<표 5> 연구 도구 전체 표	30
<표 6>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표 7> 변수의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	33
<표 8> 인구통계학적 요인별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 분석	36
<표9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38
<표10>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39
<표 11>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40

<표 12>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41
<표 12>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조절 효과	43
<표 13>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	48
<표 14>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	53

그림 목 차

<그림1> 사회적 상황에서의 심리사회 스트레스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사회적 하위변인의 조절효과	46
<그림2> 사회적 상황에서의 심리사회 스트레스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가족적 하위변인의 조절효과	47
<그림3>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51
<그림4>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태도적 스트레스와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52
<그림5>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환경적 스트레스와 중요하게 인식되는 타인 지지의 조절효과	56
<그림6>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사회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57
<그림7>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태도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58

<그림8>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가족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59

<그림9>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환경적 스트레스와 중요하게 교
사 지지의 조절효과

60

<그림10>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환경적 스트레스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6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개방화·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활발한 국제교류의 추진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계화·국제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미 우리는 국경을 초월해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며 문화를 교류하는 일을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쉽게 그리고 빈번히 하고 있다. 국가 및 정부차원에서의 각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업이나 교육 등 다양한 세계화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국제교류의 추진은 민간차원에서의 해외진출 확대로 이어졌다. 2000년부터 해외 유학이 자유화되어 초중고 학생들이 쉽게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단기간 해외를 여행하는 학생들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간 조기유학생의 수는 1만 명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구적으로 해외에 머물기도 하고 일시 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하고 또한 해외에 이민을 갔던 교포들이 역이민을 하는 현상도 늘고 있다. (강란혜, 2000) 그에 따라 귀국하는 해외 귀국 학생 수도 수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1995년부터 이후 5년 간 38,631명, 1999년 한 해 귀국한 학생은 6,510명에 이르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 1999)

또한 국가 및 정부차원에서의 각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급증하였다. 특히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경제 활동과 더불어 거주 기간의 중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가족들이 서울의 주요 구

성원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배려가 절실해지고 있다. 외국인 자녀들은 위한 교육 여건은 외국인들의 투자 활동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가족을 이루고 영위할 수 있는 서울의 생활과 교육 기반이 서울에의 투자와 경제 활동에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주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조권중, 2002)

이와 더불어 최근 해외 자본 유치와 일부 경제특구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학교 설립 추진이 강화되었다. 국내의 국제학교는 2005년 기준으로 전국에 43곳(영미권 20곳, 화교 19곳, 기타 4곳)으로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외국인을 위한 학교로, 설립 주체는 외국인이고 입학 자격은 외국인, 외국 국적 소지자 또는 국외 거주5년 이상인 내국인이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2012년까지 서울 반포 개포 상암 등에 국제학교 3곳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국제학교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국인 입학 기준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설립도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과 국내 학교법인으로 확대된다. 국제학교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사 등 일정 교과목을 가르치면 국내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인정된다. (매일 경제, 2008. 5. 23)이렇게 국제 학교 입학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제학교 입학자격이 되는 내국인 학생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 국제학교로의 진학을 원하는 수요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의 교육환경에서는 만족할만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바람직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의 반영으로 보기도 한다. (정재욱 &

주은선, 2003)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들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들의 상당수는 일반 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에 진학한다. 이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문화에 새롭게 적응을 하거나 재적응을 하면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및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문화 접촉에 의한 문화적 마찰, 해외 부적응, 그리고 이문화 체험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부모의 해외에서의 이주나 일 관계로 장기체제를 경험한 아동 청소년은 수년간의 외국생활로 인한 문화적 충격뿐만 아니라 이문화를 접하고 다시 모국의 문화를 접할 때 언어, 학습 그리고 정서, 사회적 문제를 요구한다(강란혜, 2000에서 재인용). 귀국한 아동이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상은 귀국 후 재적응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고(동아일보, 1993년 7월 13일), 이에 따른 귀국자녀들의 생활적응과 학습적응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문화수용 과정은 개인의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 이질적인 문화에서의 갑작스럽고도 과도한 변화로 인한 심리문화적 스트레스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문화접촉에 의한 문화적 마찰, 해외부적응 그리고 이문화 체험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게도 적응해야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부모의 해외에서의 이주나 일 관계로 장기체제를 경험한 아동 청소년들이 수년간의 외국생활로 인한 문화적 충격뿐만 아니라 이문화를 접하고 다시 모국의 문화에 접할 때 언어, 학습 그리고 정서, 사회적 문제를 요구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귀국한 아동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상은

귀국 후 재적응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고(동아일보, 1993), 이에 따른 귀국 자녀들의 생활적응과 학습적응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이주자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불안감이나, 우울, 소외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높은 신체화증상,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Williams, Carolyn, and Berry, 1991). 그러나 이문화수용을 경험하는 모든 이주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Berry와 Kim(1988)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의 조건, 관계 안에서 약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성이나 연령, 직업, 교육 정도, 거주 기간, 이주 후의 변인들, 이문화수용의 유형이나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이들을 수용하는 태도와 특성,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대처 능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Karmela, 1996). 특히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완충시키고,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의 도전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이소래, 1997에서 재인용)

외국의 문화와 교육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하는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부적응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 수 보고되고 있고 앞으로 국제학교수의 증가와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의 수가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문화적 및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문화수용 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와 주한 외국인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들 및 초등학생 및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해외 귀국 학생들의 국내 일반학교 적응에 대한 연구는 상당 수 보고되어 있는 반

면, 한국 주재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내국인 및 해외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에 관련된 논의 및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와 어느 정도 관련된 이전 선행 연구들로는 최태일(2001)의 주한 외국인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와, 노충래(2002)의 재외국민특례입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청소년에 관하여는 이현지 · 남현주의 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한 국제학교 학생들이 국내 문화 적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하는 학생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뿐 아니라 신체화 증상 및 우울감을 비롯한 내재화 문제, 이문화수용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고 외국의 선행연구(Gaw, 2000; Isogai, Hayshi & Uno, 1999; Mirsky & Kaushinsky, 1989)를 토대로 주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및 우울감 상황을 점검하고 이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우울감(depression), 이문화수용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perceived social support), 심리사회적 스트레스(psychosocial stress)라는 네 가지의 주요 심리학 연구에 관해 고찰하였다. 우울감 즉,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근심, 침울감, 무력감, 무가치감, 의기소침상태와 활동저하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기존연구에서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변인이다. 또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 우울에 대한 영향변인으로서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속하는 변인으

로는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대표적이었다. (Yong Cho, 2002)

본 연구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문화적 적응의 정도에 따른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그들의 심리적 부적응의 한 형태인 우울감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과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변인들이 우울감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학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청소년기 발달과정상의 정체성의 혼란과 입시준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기 이문화 경험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심층적인 연구와 계속되는 증가 추세에 있는 국제학교 설립 및 학생 수 증가에 대한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가설 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 중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이들이 경험하는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가설 1-1. 주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중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주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중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보일 것이다.

가설 1-3. 주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중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낮은 수준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보일 것이다.

가설 1-4. 주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중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

가설 1-5. 주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중 해외 거주 기간이 길수록 높은 수준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보일 것이다.

연구 문제 2.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 중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를 알아본다.

가설 2-1. 주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이문화 수용 스트

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3.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 중 청소년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심리적 우울감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본다.

가설 3-1.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일 것이다.

가설 3-2.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중 높은 수준의 부모의 지지가 낮은 우울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3.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일 것이다.

가설 3-4.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중 학업에 관한 높은 스트레스는 높은 우울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문화수용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1) 이문화수용

문화가 다른 두 사회 집단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접촉 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성원들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문화수용 (acculturation)이라고 한다.(Redfield, Linton & Herkowitz, 1936). 이문화수용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용어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erry, 1990). 이 정의에서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집단 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 심리학자들을 포함한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시작하면서, 직접적인 문화적 접촉에 의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의 심리적인 변화로 개념화되었다(Berry, 1997).

이문화수용 에 대한 심리학의 연구는 초기에 이민자와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임상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로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 학습 접근, 스트레스 대처 접근, 사회 정체감 이론 등의 패러다임들이 등장하여 활발한 연구를 펼쳤다. 이문화수용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Berry 의 이문화수용 모델과 그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문화수용 에 대한 가장 초기의 연구는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로 시

작되었다. 1903년 미국의 자료를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70%가 이민자들 이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그 결과는 그 당시 미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향후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Furnham & Bochner, 1986). 그러나 이민국에서 조사했던 연구보고의 결과는 많은 혼동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석되었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결과였음이 밝혀졌으며 (Robertson, 1903), 그 이후의 조사들에서도 이민자들의 입원률이 과대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져, 이민자와 현지인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고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때에 이루어진 후속 연구들은 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였다. 이 연구들에서 이민과 정신병의 관계를 설명하는 공통적인 결과들이 도출되었는데, 하나는 정신병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을 가게 되면 그 결과 정신병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Ward et al, 2001). 1980년대의 연구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정신병리적 접근이 과했음을 다시 발표하는 연구들이 많았고 이어 심각한 정신병리 보다는 덜 심각한 수준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대처, 그리고 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초기 이민자 연구에 이어 1950년대부터는 유학생, 국제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역시, 개인의 병리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아 사회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해서 살게 될 때 겪는 변화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문화적응 과정의 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았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Oberg(1960)의 문화충격(culture shock) 이론은 이문화에 체류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네 단계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밀월(honeymoon) 단계로, 새로운 문화와 만나는 황홀, 감탄, 열정을 느끼는 시기이고 두 번째는 위기 단계로서 좌절, 불안, 분노, 부적절함 등을 느끼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회복 단계로서 위기를 해결하고 문화를 배워나가는 시기이고, 마지막은 적응 단계로서 새로운 환경을 즐기고 기능적으로도 유능해지는 단계이다. Oberg를 비롯하여 문화적응 단계에서 겪는 단계에 초점을 맞춘 초기의 이론들은 적응의 과정이 초기의 감탄, 이후의 좌절, 점차적인 적응의 U-curve를 따른다고 보았고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경험적으로 밝혀내려는 시도도 하였다. 더 나아가 Gullahorn(1963)에 의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재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U-curve를 겪게 되며, 그 과정을 종합하면 W-curve를 이룬다고 제안하였다(정진경 & 양계민, 2004). Berry(1980, 1990, 1997)는 이문화수용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 하였는데 두 가지 차원이란 첫째,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둘째,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모국의 문화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integration),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sation)가 된다.

2)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이문화수용의 개념 안에서 난민들이나 이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Lazarus and Folkman(1987)이 발전시킨 개인의 적응 능력을 넘어서는 내적, 외적인 요구로서 스트레스 개념에 그 바탕을 두고, 여기에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확장한 심리, 문화적 스트레스를 말한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충격(culture shock)의 대안적인 용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현상을 망라하는 것이다. (William & Berry, 1991)

Berry, Kim, Minde and Mok(1983)는 기후와 지리, 음식, 심리 문화적 차이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Berry(1987)는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이문화수용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을 경험하며, 갑작스럽고 과도한 변화와 자신의 지지 체계를 잃은 상실감은 개인의 적응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문화적 스트레스가 바로 주가 되는 문화와 이를 받아들이는 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이다.(Berry, 1987)

유학생이나 이민자와 같이 이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문화 적응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성, 경험한 문제들의 심각성 정도와 횟수, 거주하는 나라에 도착하기 전부터 도착한 후까지 자기 통제력의 쇠퇴 정도, 다른 문화

에 관한 준비의 적절성, 유학생이 자국에서 거주했던 지역사회의 크기, 사회적 지지, 언어적 능력과 경제적 자원의 적절성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다(Kagen & Cohen, 1990). 그 외에도 문화 적응의 정도는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좌절감, 불안감, 소속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Lewthwaite, 1996). 또한 Sam과 Eide(1991)는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거주한지 2~3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Oei와 Notowidjojo(1990)는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유학생들이 우울감과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1991년 William & Berry의 연구에서도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한 바 있는데, 높은 SES와 교육 수준, 직업적 배경은 이주 후 이문화 수용에 명백히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Ziber와 Lerner(1996)는 이스라엘에 이주한 사람들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직업과 과거 디스트레스의 병력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이 어릴수록 그 문화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가 적었고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고국에 대한 향수가 더 강했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2007에서 재인용). 1986년 Padilla와 그의 동료들에 연구에 의해서도 12세 이전에 이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12세 이후에 경험하는 것 보다 낮은 수준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재정적 자원 또한 이주한 개인이 경험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vey, 2000). 사회적 지지감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수들 또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Berry & Kim, 1988; Williams & Berry, 1991).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막다른 골목에 달한 느낌이나 소외감,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을 동반한다.(Williams & Berry, 1991).따라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같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감소시키는 근거가 되는 현상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는 위기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Smart & Smart, 1994: Berry & Kim, 1987).

이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부적응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Berry와 Kim(1984)은 문화충격으로 알려져 왔던 이 스트레스가 이민자나 해외 유학생들의 가장 주요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변인임을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Yong Cho, 2002). 높은 수준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겪는 이민자나 유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높은 우울감이나 자살관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민자 및 이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룹에서 발견되고 있다. Ponizovsky(1999)의 이스라엘에 이민 온 러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와 Hovey(2000)의 라틴아메리카 미국 이민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3)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많은 청소년 유학생들은 그들의 교육적 환경 내에서 학업요구에 의한 억압, 언어적인 장벽, 경제적인 불안, 문화적 또는 가치적 갈등, 향수병, 고정관념, 편견, 차별과 같은 스트레스 원인을 경험한다고 발견되었다(Prieto,

1995; Pedersen, 1991 Barratt & Huba, 1994; Kagen &Cohen, 1990;Lewthwaite, 1996 Lin & Yi, 1997; Yang et al.,1994).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하는 학생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신체화 증상 및 우울감을 비롯한 내재화 문제, 이문화수용 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고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Gaw, 2000: Isogai, Hayshi & Uno, 1999: Mirsky & Kaushinsky, 1989). 또한 Cho(2009)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문화 접촉의 경험이 있는 아동 청소년은 신체적 발달이나 인지 및 정서발달에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므로 성인기에 비하여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아동기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은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심리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Black, Mendenhall & Oddou, 1991; Bochner, 1982).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되면 구체적으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강란혜(2000)는 해외 귀국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등교거부, 우울, 무기력, 식용부진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귀국아동 청소년은 귀국 후의 큰 환경의 변화로 국내거주 아동 청소년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 ‘스트레스 대처 접근’(Lazarus & Folkman, 1984)이론은 이문화 수용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즉, 이문화를 경험하는 생기는 생활사건의 의미,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민자나 체류자의 인지적 평가 그리고 변화를 다루는 대처 전략의 선택과 수행 등에 초점을 둔다. 핵심적인 가정은 문화간 접촉과 변화가 사회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이민자의 원래 사회와 정착하게 되는 사회의 특성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적 접촉은 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대처 반응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문화적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은 개인과 상황의 특성에 의해 매개되며, 최종적으로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Lin, Tazuma, & Masuda, 1979; Shisana & Celentano, 1987; Adelman, 1988; Ward & Kennedy, 1992; Ward & Chang, 1997).

대개 문화적응의 과정은 수용자에게 정착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습득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익히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주변의 압력이 심할 경우 불가피하게 심리 사회적 문제들이 유발되기도 한다(Berry, 1997). 또한 적응을 요구하는 문화적 상황의 변화가 개인의 대처능력과 자원을 초과할 때 임상적 우울감이나 불안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유발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yasuriya et al., 1992; Berry, 1997). 위에서 언급한 Oberg(1960)의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이론 역시 개인차는 있다

라도 일반적으로 타문화권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적응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불안, 좌절, 우울 등을 경험하는 정신건강상의 위기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양옥경, 김연수, 2007).

3.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1)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며 명확한 개념화 및 조작화에서 많은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지지란 사람이나 집단 구성원간의 관계,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Israel and Rounds(1987)는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간의 개념적 구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이소래, 1997). 또한 Baumamm(1992)은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긍정적 영향’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 더욱 구체화된 개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Veiel and Baumamm(1992)는 사회적 지지를 세 가지 영역에서 제안 하였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에 대한 그 사람의 성격 특성과 같은 비교 적 안정적인 형태이다. 즉, 사회적 지지는 마치 개인의 성격 특성처럼 그 사람이 자신의 주변 환경과 작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요소는 도움을 주거나 격려 및 위안을 해주는 지지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사회적 지지는 지지적 연결망의 특

성도 가진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과 그 사람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념 하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개인적 특성의 영역에 해당된다. 무수히 많은 연구들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것에서 실제적으로 유효한 사회적 지지보다 더욱 중요하다.'(Mankowski & Wyer, 1997; Barrera, 1981; Sarason et al, 1985; Wilcox, 1981)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Sarason(1986)과 그의 동료들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한 개인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개념을 Bowlby의 애착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수용감'의 개념으로 정의 내렸다. Sarason과 그의 동료들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생애 초기 자신과 다른 세대와의 중요한 관계의 작용 모델의 중요성과 지속성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다음의 긍정적 특성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높은 대인관계 기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행동을 이끄는 자기 효능감, 낮은 불안 수준, 긍정적 자기 이미지,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기대 그리고 타인과의 적응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관련 변인들이다. (Cho, 2002에서 재인용)

Sarason(1996)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개인의 성격 변인 중 하나로써 사회 환경에 친숙하고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한다. Wyer(1997)은 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을 "개인의 기억에 존재하는 지지(support)와 연관된 지식의 정신적 표상"이라고 정의하였다(Cho, 2002에서 재인용).

2)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

이민자나 이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우울은 특별한 대상의 상실, 사회적 지지와 중요한 관계의 상실에 의해 복잡하며 슬픔과 비탄의 감정을 증가시킨다. 이에 대한 해결은 애착패턴, 사회적 지지의 존재,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이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오남, 2007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배우자나 친구, 동료, 가족 등으로부터 심리적, 인지적 혹은 물질적 지지를 제공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Kaplan et al., 1983). 사회적 지지감중에 특히 가족지지는 정신건강에 높은 예견인자라고 밝혀져 있다(Hovey, 2000).

우울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Kandel(1991)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실제로 개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만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Sarason(1985)나 Mankowski(1997)등과 같은 학자들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가 실제 일상적인 스트레스 변인의 방어요소로써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와, 인지된 사회적 지지감의 효과는 이민자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검증되었다. 즉, 높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낮은 사회적 지지감을 갖는 이민자들은 높은 자살관념을 갖게 되며, 이문화수용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감이 자살관념 및 자살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2002에서 재인용).

원문화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 즉 개인은 소수의 집단으로 차별 받을 때 자신 종족집단의 독특한 특성을 가치 절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결핍된 소수집단 학생들은 문화적 정체감에 혼란스러워하며 정서행동문제를 더 보였다(Pinderhuges, 1989; Pawliuk et al., 1996; Cederbald et al., 재인용 김오남 2007).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 유용성은 우울감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혀졌다(Bhugra, 2004). 1990년에 있는 이민여성에 대한 Belle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또는 정서적 지지 그룹(배우자, 친척, 친구 등)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을 겪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이문화를 경험하는 성인 및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학적 변인으로 볼 수 있다.

4.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이문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교육적 환경 내에서 학업요구에 의한 억압, 언어적인 장벽, 경제적인 불안, 문화적 또는 가치적 갈등, 향수병, 고정관념, 편견, 차별과 같은 스트레스원(stressors)을 경험한다고 발견되었다. (Prieto, 1995; Pedersen, 1991; Barratt & Huba, 1994; Kagen & Cohen, 1990; Lewthwaite, 1996; Lin & Yi, 1997; Yang et al., 1994)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신체적 건강 저하와 좌절감, 불

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문화를 경험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흔히 보고하는 문제들 중 하나가 외로움과 우울감이 라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Harvey & Stewart, 1991; Lu, 1990; Oei & Notowidjojo, 1990; Lai & Linden, 1993; Ebbin & Blankenship, 1986).

외로움,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은 학업적 성취(Beane & Bradley, 1986), 학습과 발달(Pike, 1993), 사회화(Lin & Yi, 1997)같은 다른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하여 이문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다(Pedersen, 1991). 또한 청소년 유학생의 경우, 선행 연구에 의하면 유학생들은 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 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부문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rratt & Huba, 1994; Lewthwaite, 1996; Lin & Yi, 1997; Yang, Teraoka, Eichenfield, & Audas, 1994; Ying & Liese, 1994)

5. 국제 학교

서울 거주 외국인 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은 서울의 외국인 학교 또는 국제학교들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제학교는 구한말 이래 서울의 외국인들을 위해 교육을 담당하여 왔다. 서울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학교 역시 수가 증가하였고, 규모도 팽창하였다. 그런데 서울의 국제학교들은 기존의 한국의 교육체계와는 다른 맥락에서 운영되어 왔고 일차적으로 서울 거주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한국의 규제 개혁의

과정에서 국제학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지기도 하였지만, 2002년부터 새로운 법체제하에서 한국의 교육 제도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전국의 국제학교는 2005년 기준으로 모두 43개 이다. 이중 서울에는 16개의 국제학교가, 경기도에는 4개의 국제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인가된 국제학교에서는 총 6,469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667명의 교원이 종사하고 있다. 16개의 학교 가운데 특정 국가를 전제하고 있는 국제학교는 서울독일학교, 서울일본인학교, 서울프랑스학교, 화교학교, 영국학교(서울외국인학교 내 설립)가 있다. 이들은 해당 국가와 문화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 학교는 유치원 과정만 개설된 프란체스코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에서 설립했으며, 미국식 교육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이처럼 국제학교는 해당 국가의 문화와 교육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하는 즉 외국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학업, 정서, 환경적 상황에 대한 질적 관리를 하고 있다. 학교 내, 외 환경에 대한 부모님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 시설,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질과 같은 학교의 물리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교과 외 활동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의 경우 그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영란, 2005) 국제학교의 입학 허가 조건은 외국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적 규정은 점차 완화되어, 5년 이상의 제한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줄어들 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할 때, '5년 이상 해외 체류 경험'을 한 청소년의 경우 앞서

살펴본 최화순(1990)의 연구에서처럼 이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대략 1년 내외로 본다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 하면서 그 문화권에 적응 후 본국에 귀국해서 외국과 동일한 환경인 학교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없을 수 있으나, 의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서 문화 재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동시에, 해외에서 시민권만 취득하고 출생 후 바로 귀국을 하여 계속해서 국제학교에 다닌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학교 내는 외국과 동일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라면 그에 비해 의 한국 문화권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국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4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설문지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업 성취 수준, 인종, 경제 수준, 종교, 취미 활동, 가족 관계, 현 거주 형태(동거인), 해외 체류기간, 거주 국가, 시민권,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개인적, 사회 환경적 배경에 관련된 질문이 조사도구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인들은 독립변인으로서 주한 국제학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적용하였다.

2)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척도 :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Hovey & King(1996)이 개발한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Adolescents(SAFE scale for Adolescent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태도적, 가족적, 환경적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의 성인판은 1985 Padilla와 그 동료들의 Hispanic 사람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이후 미국 이민자, 일본계 미국인등과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한국 주재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단어를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각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사람들은 내가 단지 영어로 말을 잘 못하는 것뿐인데 나를 수줍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나는 가족들이 나의 새로운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할 때 괴롭다.”, “나는 내 문화적, 인종적 배경 때문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나를 제외시킨다는 느낌을 받는다.”와 같다.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 1’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 5점’으로 Likert식 5점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vey & King(1996)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에서 .87이었다.

<표 1>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변수	하위요인	Cronbach's Alpha
	사회적 스트레스	.87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태도적 스트레스	.84
	가족적 스트레스	.81
	환경적 스트레스	.70
	전체	.81

3)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척도 : MSPSS(Multidimensional Scale for Perceived Social Support)

이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식의 설문지로 Zimet과 그의 동료들(1988)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가족, 친구, 그리고 그 외 중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예,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와 그것에 대한 본인의 만족감의 정도)감을 측정한다. 각각의 문항들은 응답자에게 지난 한 달 동안의 개인적, 건강적, 재정적, 또는 삶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척도는 Likert식 7점 평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 1'에서 '매우 그렇다. = 7'로 개인별 점수는 12점에서 84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988년 Zimet과 그의 동료들에 의한 college student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이었고 3가지의 하위 척도들의 신뢰도는 가족의 지지 = .91, 친구의 지지 = .87, 그 외 중요한 다름

사람의 지지 = .85이었다.

Dahlem, Zimet, & Walker(1991)는 이 척도의 예언 타당도를 보기 위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불안, 우울 증상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입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우울 증상, $r=-.24$, 불안 증상, $r=-.18$ 과 역의 관계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척도에 ‘선생님’의 지지에 관련된 문항을 추가 하였는데 이는 국제 학교 청소년들이 그들의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감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선생님의 사회적 지지가 포함된 척도를 사용했던 2002년 조용범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에서 .98이었다. 이번 연구에서의 MSPSS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에서 Cronbach's alpha = .93이었다.

<표 2>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척도의 신뢰도

변수	하위요인	Cronbach's Alpha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타인지지	0.90
	가족지지	0.86
	교사지지	0.84
	친구지지	0.93
전체		0.88

4)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질문지 : PSQ (Psychosocial Stressor Questionnaire)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조용범(2002)에 의해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의 자살관념,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 사용 되었고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사회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PSQ는 16가지의 스트레스 변인에 대해 현재 느끼는 수준을 답하도록 되어 있고 Likert식 5점 평점 척도로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 0',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 4'로 개인별 점수는 최저 0에서 64점 사이에 분포한다. 2002년 조용범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에서 .7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6에서 .78이었다.

<표 3>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변수	하위요인	Cronbach's Alpha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78
	환경적 스트레스	.78
	대인관계 스트레스	.66
	학업적 스트레스	.77
전체		.75

5) 우울감 척도 : BDI-I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는 Beck, Steer, & Brown(1996)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21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 형식의 척도로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들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임상 및 비임상 장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다음과 같은 우울한 증상과 태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 슬픔, 비판, 패배감, 자기 불만족, 죄책감, 벌 받는 것 같은 느낌, 자기 중요, 자기비판, 자살 생각, 울음, 불안, 흥미상실, 우유부단, 낮은 자존감, 짜증, 낮은 신체 에너지, 피로, 집중력 저하, 사회적 철회, 수면패턴의 변화, 식용의 변화, 성적 관심 감소. 이 척도는 4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지며 0에서 3점까지로 개인별 점수는 0에서 63사이에 분포한다.

BDI-II의 신뢰도는 매우 높는데,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이었다. BDI-II는 두 개의 변인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변인은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패배감, 우유부단' 등과 같은 우울감의 인지적-정서적 차원에 대한 변인이고, 두 번째는 '수면, 식욕, 집중력, 성적 관심'과 같은 우울감의 신체적 증상에 관련된 신체화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의 BDI-II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에서 .85이었다.

<표 4>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

변수	하위요인	Cronbach's Alpha
우울감	정서적 증상	0.85
	신체적 증상	0.70
전체		0.76

<표 5> 연구 도구 전체 표

측정 도구	변인	문항	척도	출처
인구사회학적 변인 질문지	성별, 연령, 국적, 학년, 성적(평점), 인종, 종교, 종교 참여 정도, 취미, 해외 거주 기간, 거주 국가, 경제 수입, 동거 형태, 형제 관계, 이주 목적 등	19	명목	연구자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척도 SAF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이문화수용 과정에서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24	등간	Hovey & King(1996)
우울감 척도 : BDI-II (Beck Depression Inventory - II)	1(affective symptoms)	16	등간	Aaron T. Beck
	2(somatic symptoms)	5	등간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질문지 : PSQ (Psychosocial Stressor Questionnaire)	학업, 부모와의 관계, 친구 관계, 경제적 상황, 선생님과의 관계 등 일상생활 스트레스	16	등간	Yong-Beom Cho(2002)
지각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척도 : MSPSS(Multidimensional Scale for Perceived Social Support)	사회적 관계에 관해 느끼는 바에 대해 기술하는 질문	20	등간	Zimet

3.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을 거쳐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3.0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대해서는 빈도수(Frequency)와 백분율(Percent)을 산출하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 및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set)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 후 차이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인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감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50.0%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7세가 35.7%로 가장 많았고, 16세, 15세, 14세, 18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종은 한국인이 88.6%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기타, 미국인/유대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 여부에서는 안한다가 67.1%, 한다가 32.9%로 나타났으며, 혼자 산 경험은 있다가 60.7%, 없다가 39.3%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사례수(%)
성별	남자	70(50)
	여자	70(50)
연령	14	7(5)
	15	33(23.6)
	16	44(31.4)
	17	50(35.7)
	18	6(4.3)
인종	한국인	124(88.6)
	중국인	9(6.4)
	미국인	1(0.7)
	유대인	1(0.7)
	기타	5(3.6)
여가 활동	한다	46(32.9)
여부	안한다	94(67.1)

혼자 산	있다	85(60.7)
경험	없다	55(39.3)
Total		140

2.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서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울감에서는 우울감의 신체적 변인이 0.95, 우울감의 정서적 변인이 0.64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서는 학업적 스트레스가 2.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환경적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감에서는 타인지지가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변수의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

	변인	N	M(SD)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140	2.05(1.00)
	태도적 스트레스	140	2.12(1.08)
	가족적 스트레스	140	2.14(1.14)
	환경적 스트레스	140	2.17(1.05)
우울감	정서적 증상	140	.64(.47)
	신체적 증상	140	.95(.57)

	사회적 스트레스	140	.51(.90)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140	1.17(.92)
	대인관계 스트레스	140	.94(.96)
	학업적 스트레스	140	2.10(1.22)
	타인지지	140	5.31(1.48)
사회적 지지감	가족지지	140	5.21(1.50)
	교사지지	140	4.04(1.31)
	친구지지	140	5.09(1.50)

3.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주한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성별, 연령, 여가활동 여부, 혼자 산 경험, 해외 거주 기간, 부모 동거 여부와 같은 변인 따른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고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들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령별로 이문화수용 스

트레스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을 보면, 여가활동을 안하는 집단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혼자 산 경험 여부에 따른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고,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 척도인 환경적 스트레스에서는 유의수준 1%, 사회적 스트레스에서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을 보면, 혼자 산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해외거주기간별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전체 척도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차이가 있었고 척도의 하위 변인들을 살펴보면 특히 사회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0.1%, 태도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1%, 가족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다. 평균을 보면, 해외거주기간이 길수록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동거여부별 차이에서는 하위 변인인 사회적 스트레스, 태도적 스트레스, 가족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에서 각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다. 평균을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보다 미동거하는 집단에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8 > 인구통계적 요인별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 분석

변인	분류	N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M(SD)	통계량,p
성별	남자	70	1.92(0.98)	-2.398*
	여자	70	2.31(0.92)	
연령	14	7	1.8(1.2)	1.113
	15	33	1.94(0.87)	
	16	44	2.28(0.98)	
	17	50	2.08(0.96)	
	18	6	2.56(1.12)	
여가활동 여부	한다	46	1.88(0.8)	-2.008*
	안한다	94	2.23(1.02)	
혼자 산 경험	있다	85	2.27(0.98)	2.389*
	없다	55	1.88(0.9)	
해외거주 기간	1년이하	12	1.72(0.65)	5.502**
	2-5년	32	1.66(0.82)	
	6-10년	59	2.21(0.96)	
	11년이상	37	2.49(1.01)	
부모동거 여부	동거	79	1.94(0.89)	-2.484*
	미동거	61	2.34(1.02)	
Total		140	2.12(0.97)	

* : p<.05, ** : p<.01

4. 변수간 상관관계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정(+)¹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사회적 지지감과는 부(-)²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감은 부(-)³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이문화사 회	이문화태 도	이문화가 족	이문화환 경	사회스 트	환경스 트	대인스 트	학업스 트	타인지 지	가족지 지	교사지 지	친구지 지
이문화사 회	1											
이문화태 도	.859***	1										
이문화가 족	.739***	.731***	1									
이문화환 경	.791***	.838***	.645***	1								
사회스트	.516***	.556***	.497***	.372***	1							
환경스트	.442***	.454***	.494***	.377***	.646***	1						
대인스트	.337***	.395***	.287***	.312***	.618***	.618***	1					
학업스트	.293***	.284**	.171*	.221***	.269**	.428***	.369***	1				
타인지지	-.373***	-.399***	-.340***	-.360***	-.408***	-.385***	-.327***	-0.127	1			
가족지지	-.516***	-.452***	-.575***	-.377***	-.507***	-.553***	-.438***	-.177*	.589***	1		
교사지지	-.187*	-.296***	-.242**	-.309***	-0.128	-.286**	-.327***	-0.089	.359***	.333***	1	
친구지지	-.401***	-.431***	-.393***	-.405***	-.470***	-.323***	-.322***	-0.081	.762***	.541***	.234**	1

* : p<.05, ** : p<.01, *** : p<.001

5.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5-1.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R Square값이 0.442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44.2%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우울감에 유의수준 0.1%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R Square값이 0.480으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48.0%로 나타났으며, F=31.153으로서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 가족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1%에서 우울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B	Beta	R ²	F, p	t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0.314	0.665	0.442	109.415***	10.460***
사회적 스트레스	0.205	0.447			3.397**
태도적 스트레스	0.055	0.131	0.48	31.153***	0.906
가족적 스트레스	0.103	0.257			2.681**
환경적 스트레스	-0.046	-0.107			-0.913

* : p<.05, ** : p<.01, *** : p<.001

5-2.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R Square값이 0.551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55.1%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정서적 증상에 유의수준 0.1%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들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R Square값이 0.574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57.4%로 나타났으며, F=45.478로서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1%, 가족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0.1%에서 우울감의 정서적 변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Beta	R ²	F, p	t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0.314	0.665	0.442	109.415***	10.460***
사회적 스트레스	0.205	0.447			3.397**
태도적 스트레스	0.055	0.131	0.48	31.153***	0.906
가족적 스트레스	0.103	0.257			2.681**
환경적 스트레스	-0.046	-0.107			-0.913

* : p<.05, ** : p<.01, *** : p<.001

5-3.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의 하위변인인 신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R Square값이 0.213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1.3%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신체적 증상에 유의수준 0.1%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결과 R Square값이 0.256으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5.6%로 나타났으며, F=11.530으로서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1%에서 우울감의 신체적 변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Beta	R ²	F, p	t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0.314	0.665	0.442	109.415***	10.460***
사회적 스트레스	0.205	0.447			3.397**
태도적 스트레스	0.055	0.131			0.906
가족적 스트레스	0.103	0.257	0.48	31.153***	2.681**
환경적 스트레스	-0.046	-0.107			-0.913

* : p<.05, ** : p<.01, *** : p<.001

6. 주한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 분석

6-1.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주한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우울감에 대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알아보고,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으로 상호작용을 검증할 때에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중심화(Zero-center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4개 하위변인을 투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에 투입한 독립변인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4개 하위변인을 투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투입한 조절변인에 독립변인의 4개 하위변인과 조절변인의 4개 하위변인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조절 효과

투입 단계	변인	Beta	t	R ²	R ² 변화 량	F변화량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1단계	사회적	0.366	3.067**			
	태도적	0.066	0.504			
	가족적	0.345	3.981***			
	환경적	0.047	0.439	0.574	0.574	45.4778***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2단계	사회적	0.09	1.138			
	환경적	0.129	1.675			
	대인적	0.151	2.150*			
	학업적	0.108	1.877	0.676	0.102	34.109***
	상호작용					
3단계	사회*사회	-0.526	-2.633*			
	사회*태도	0.303	1.238			
	사회*가족	0.402	2.020*			
	사회*환경	-0.036	-0.259			
	환경*사회	-0.027	-0.127			
	환경*태도	0.055	0.254			
	환경*가족	-0.087	-0.689			
	환경*환경	0.128	0.769			

대인*사회	0.229	1.111			
대인*태도	-0.156	-0.617			
대인*가족	-0.025	-0.17			
대인*환경	-0.05	-0.345			
학업*사회	0.055	0.423			
학업*태도	-0.116	-0.727			
학업*가족	-0.003	-0.031			
학업*환경	-0.07	-0.511	0.732	0.056	13.071***

* : $p < .05$, ** : $p < .01$, *** : $p < .001$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 수용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57.4% ($p < .00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1%, 가족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0.1%에서 우울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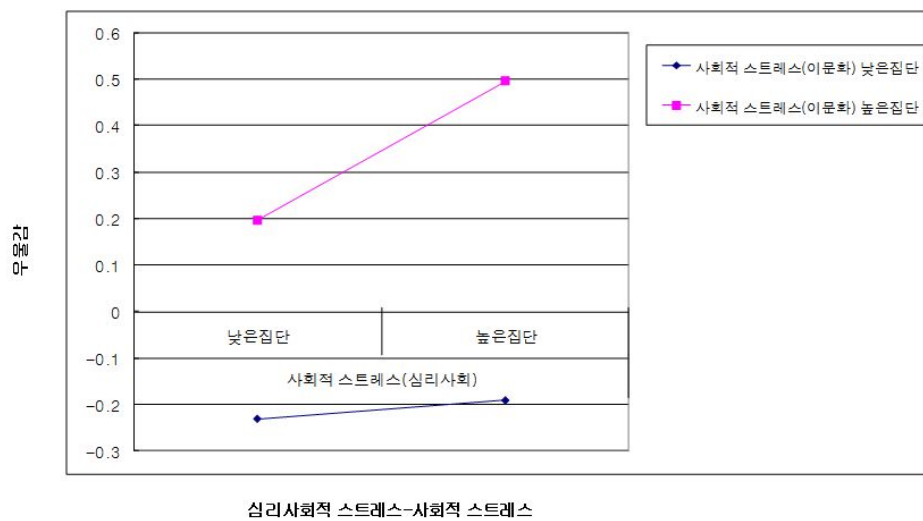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10.2% ($p < .00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위변인 중 환경적 스트레스가 유의수준 5%에서 우울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문화수용 스트레

스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은 우울감에 대한 설명력이 5.6%($p<.001$)로서 유의하였다. 각 하위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 문화수용 스트레스의 사회적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사회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사회적 스트레스와 가족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은 유의 수준 5%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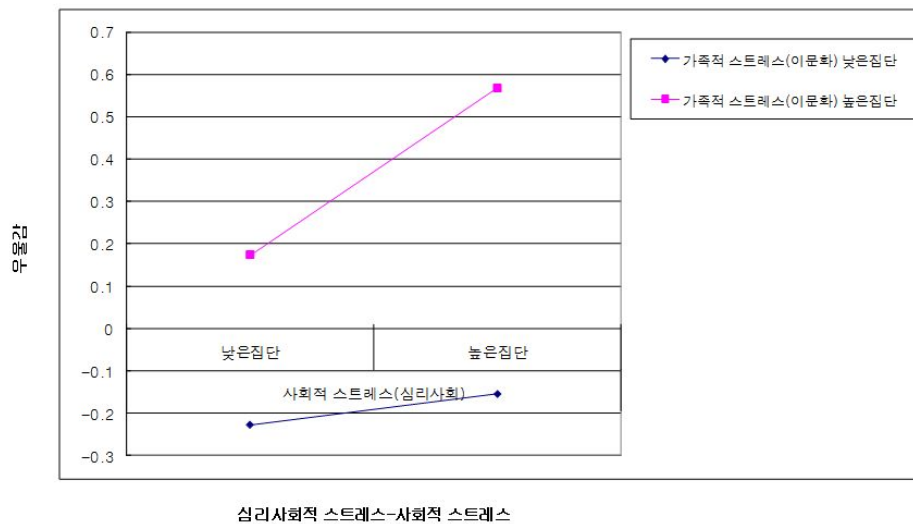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민족 및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사회적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비자나 체류 문제, 법적 문제, 마약,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는 겪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높았다. 또한 중요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높은 우울감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사회적 상황에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사회적 하위변인의 조절효과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가족과의 가치관이나 진학, 취업 등의 갈등과 관련된 가족 스트레스가 낮고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비자나 체류 문제, 법적 문제, 마약,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높았다. 또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서 가족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일상에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이는 우울감에 더 큰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림 2> 사회적 상황에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가족적 하위변인의 조절효과



6-2.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

주한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우울감에 대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영향을 알아보고,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

투입 단계	변인	Beta	t	R ²	R ² 변화량	F변화량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1단계	사회적	0.447	3.397**			
	태도적	0.131	0.906			
	가족적	0.257	2.681**			
	환경적	-0.107	-0.913	0.48	0.48	31.153***
	사회적 지지감					
2단계	타인지지	-0.218	-2.258*			
	가족지지	-0.127	-1.497			
	교사지지	-0.116	-1.766			
	친구지지	0.013	0.14	0.576	0.096	22.289***
3단계	상호작용					

타인*사회	0.248	0.936			
타인*태도	0.013	0.037			
타인*가족	-0.019	-0.099			
타인*환경	-0.084	-0.433			
가족*사회	-0.193	-0.913			
가족*태도	-0.151	-0.635			
가족*가족	0.041	0.44			
가족*환경	0.099	0.573			
교사*사회	0.31	2.094*			
교사*태도	-0.489	-2.658**			
교사*가족	0.053	0.428			
교사*환경	0.242	1.645			
친구*사회	-0.172	-0.685			
친구*태도	0.078	0.29			
친구*가족	0.016	0.094			
친구*환경	-0.043	-0.262	0.654	0.078	9.056***

* : $p < .05$, ** : $p < .01$, *** : $p < .001$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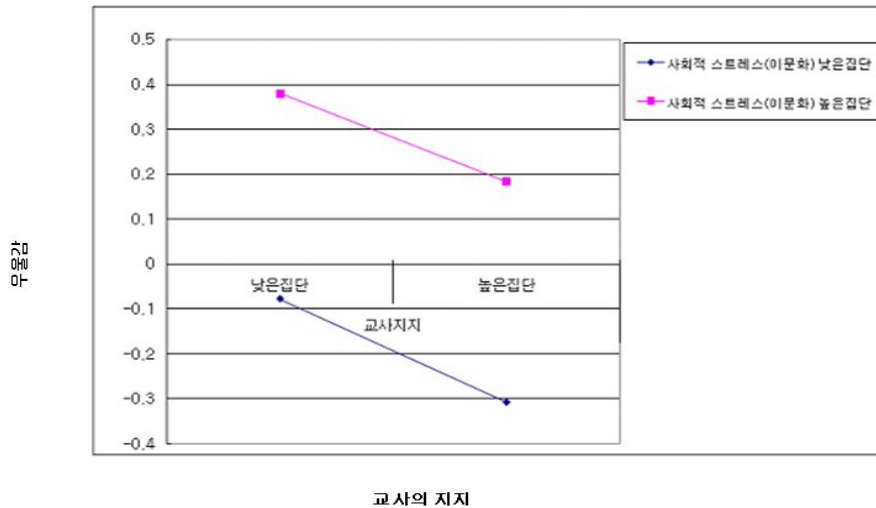
수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48.0%($p < .00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1%, 가족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1%에서 우울감에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9.6%($p < .00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이변인 중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인의 지지가 유의수준 5%에서 우울감에 부(-)²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우울감에 대한 설명력이 7.8%($p < .001$)로서 유의하였다. 각 하위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사회적 스트레스와 교사의 지지가 유의수준 5%에서 정(+)³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주국 사람들의 차별, 불친절, 언어로 인한 편견의 태도에서 받게 되는 태도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의 상호작용은 유의수준 1%에서 부(-)⁴의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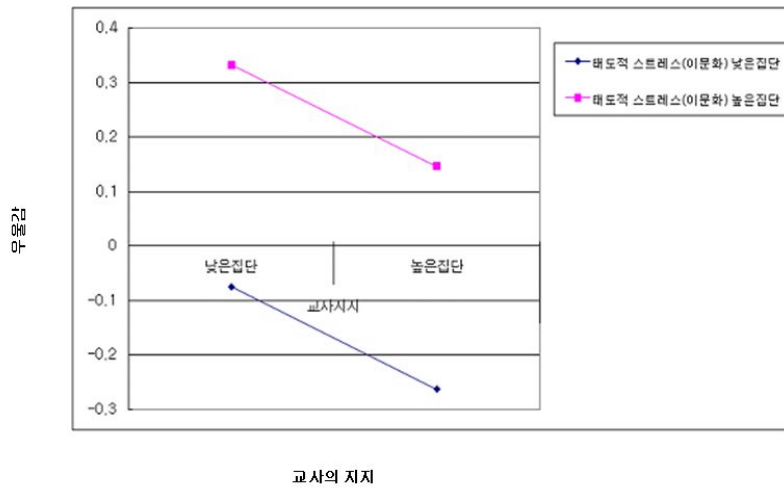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민족 및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사회적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하위변인인 교사의 지지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는 겪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낮고 지각된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낮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감의 경우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아,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교사 지지의 영향을 받아 낮은 우울감에 조절효과를 주고 있었다.

<그림 3>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주국 사람들의 차별, 불친절, 언어로 인한 편견의 태도에서 받게 되는 태도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는 겪는 태도적 스트레스가 낮고 지각된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낮았다.

<그림 4>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태도적 스트레스와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6-3.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

주한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우울감에 대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영향을 알아보고,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

투입 단계	변인	Beta	t	R ²	R ² 변화량	F변화량
1단계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사회적	0.366	3.067**			
	태도적	0.066	0.504			
	가족적 환경적	0.345 0.047	3.981*** 0.439	0.574	0.574	45.478***
2단계	사회적 지지감					
	타인지지	-0.18	-1.980*			
	가족지지	0.007	0.093			
	교사지지 친구지지	-0.15 0.039	-2.438* 0.45	0.624	0.05	27.188***
3단계	상호작용					
	타인*사회	0.006	0.025			
	타인*태도	0.619	1.916			

타인*가족	-0.018	-0.1			
타인*환경	-0.448	-2.440*			
가족*사회	-0.085	-0.425			
가족*태도	-0.04	-0.177			
가족*가족	0.099	1.115			
가족*환경	-0.117	-0.719			
교사*사회	0.276	1.981*			
교사*태도	-0.454	-2.618*			
교사*가족	-0.237	-2.017*			
교사*환경	0.342	2.470*			
친구*사회	-0.309	-1.309			
친구*태도	-0.212	-0.838			
친구*가족	0.104	0.633			
친구*환경	0.312	2.014*	0.693	0.069	10.812***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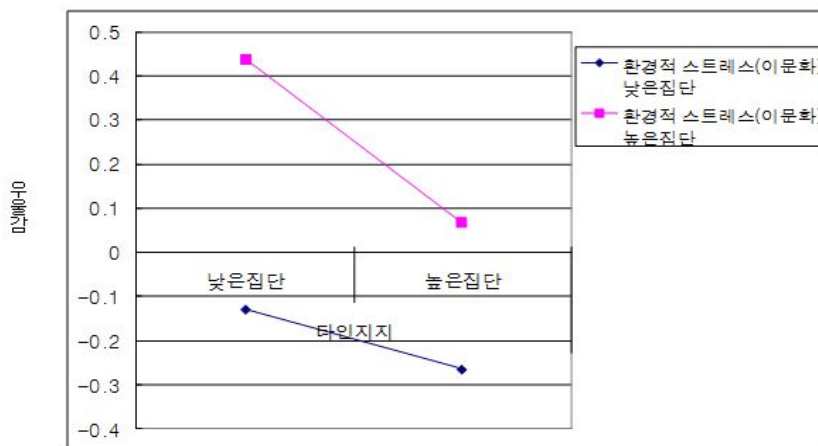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수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은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57.4%($p < .00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1%, 가족적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0.1%에서 우울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감은 5%($p < .00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이변인 중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인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가 유의수준 5%에서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상호작용은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대한 설명력이 6.9%($p < .001$)로서 유의하였다. 각 하위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주요하게 생각하는 지인의 지지와 가족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교사지지와 이문화 수용 과정에서 이주국 국민들의 차별적이고 편견적 태도에 의한 태도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교사지지와 가족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은 유의수준 5%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교사지지와 사회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교사지지와 환경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친구지지와 환경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은 유의수준 5%에서 정9(+)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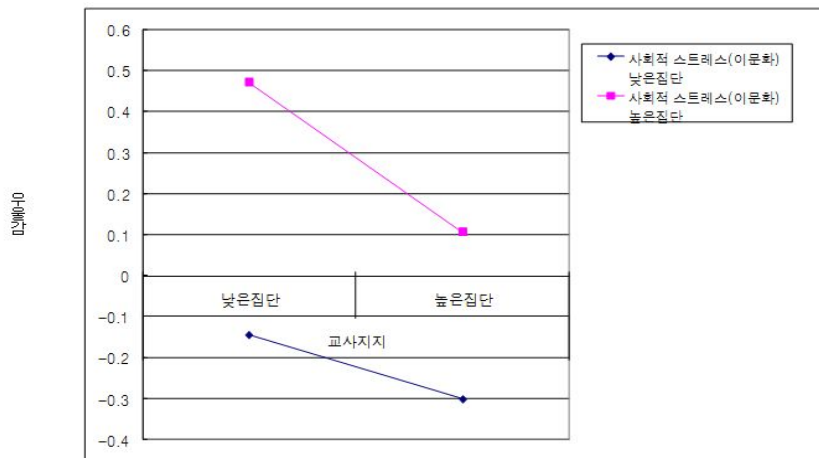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이주전 국가와 이주 후 국가의 환경적 차이에서 오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가족이나 친구를 제외한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대상인 선배와 같은 타인의 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는 겪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낮고 중요하게 인식하는 타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낮았다. 또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중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중요한 타인의 지지에 따른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대한 영향력이,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5>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환경적 스트레스와 중요하게 인식되는 타인 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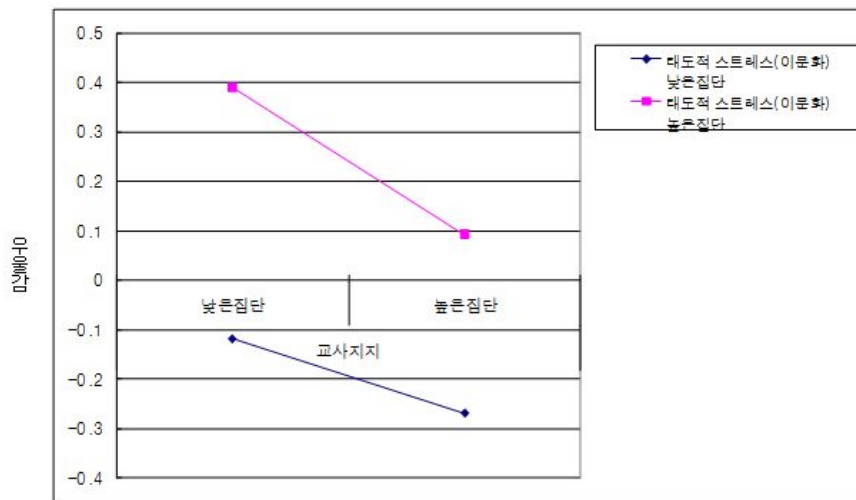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민족 및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는 겪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낮고 지각된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낮았다. 또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는 교사의 지지에 대한 영향에 따라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대한 수준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6>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사회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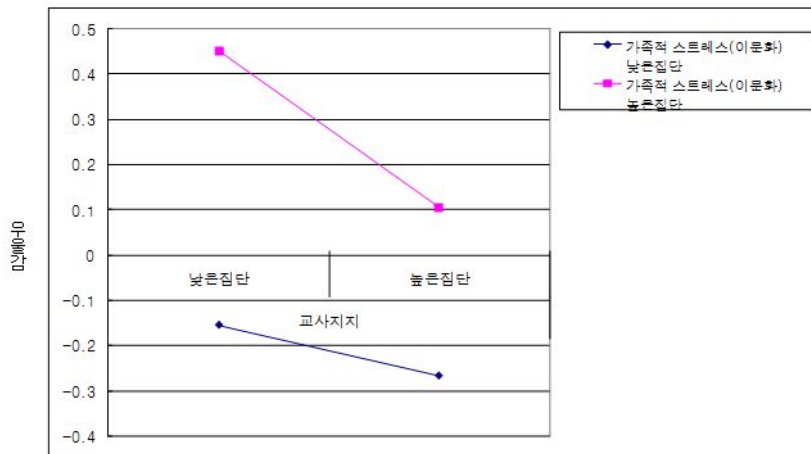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주국 사람들의 차별, 불친절, 언어로 인한 편견의 태도에서 받게 되는 태도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는 겪는 태도적 스트레스가 낮고 지각된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의 정서적 증상에 대한 수준이 더 낮았다.

<그림7>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태도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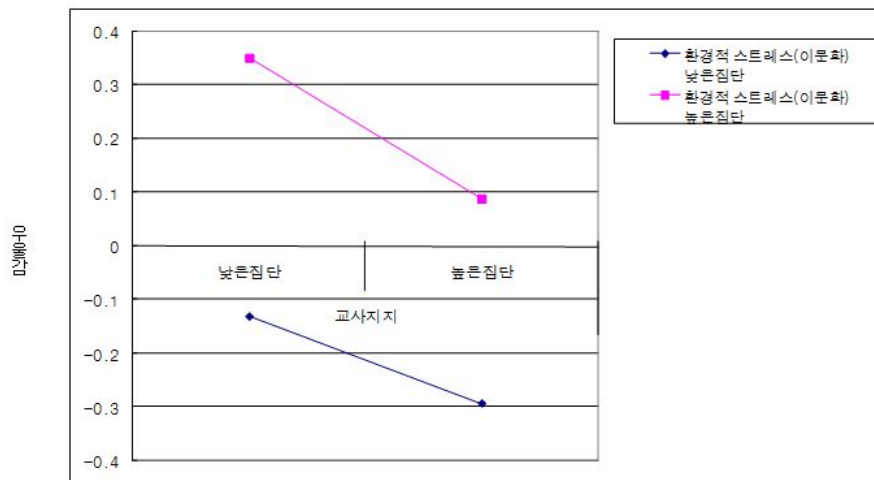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가족과 가치관 및 직업관, 진로의 갈등과 관련된 가족 스트레스와 교사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는 겪는 가족적 스트레스가 낮고 지각된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낮았다. 또한 가족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은 교사의 지지에 따라 우울감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중 가족 스트레스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교사의 지지도 인한 우울감에 대한 조절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가족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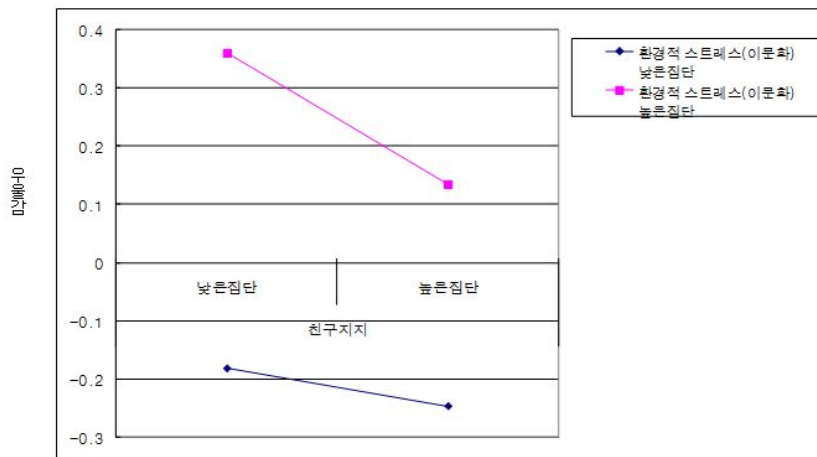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환경적 스트레스와 교사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는 겪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낮고 지각된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낮았다.

<그림9>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환경적 스트레스와 중요하게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친구 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문화수용의 과정에서는 겪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낮고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낮았다. 또한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은 친구의 지지에 의한 우울감의 조절효과를 더욱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0>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환경적 스트레스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V. 논의

최근 한국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자녀수의 증가, 해외 체류 후 귀국하는 학생 수의 증가, 기존의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제 학교에 입학하려는 움직임, 또 해외 출산 후 귀국하는 인원의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국제학교에 진학을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학교의 입학규제 완화 및 이후 계속되는 국가의 추가 학교 설립 계획으로 인해 국제학교는 더 이상 한국의 교육에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국제학교들은 한 편으로 한국 거주 외국인 자녀 교육을 담당하여 왔지만 다른 한 편으로 한국인들의 교육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울의 국제화와 더불어 한국인의 국제화라는 추세가 있다. 한국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다가 고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외 경험을 가진 가족들의 자녀들은 법적으로 이중 국적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한국의 교육 현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들의 교육에 한국의 국제학교들은 한국 교육제도의 대안이 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한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고 유학생들이나 이민자 자녀와 같이 이문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 중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우울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대표적 심리적 부적응 증상인 우울감에 대해 사회적 지지감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학적 변인들이 어떠한 조절효과 또는 완충효과를 보이는지 밝혀내어 아직까지 한국에서 수행된 적인 없는 대상인 주한 국제

학교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을 실태와 그에 따른 지원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부모 동거 여부, 혼자 산 경험, 여가활동 여부, 해외체류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 중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보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해외 거주 기간이 길수록 높은 수준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문화를 경험하는 여성 청소년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연구는 2002년 Yong Cho의 뉴욕에 거주하는 국제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수준에서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에 대하여는 한국의 일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는 보고가 대부분인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존의 일반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서와 같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아닌,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라는 문화적응 과정의 스트레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적인 연령에 따른 변화보다는 해외 거주 연령 즉 해외에 거주한 기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거주 기간에 따른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해외 거주 기간이 길수록 높은 수준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대

하여 이현지, 남현주 (2003)의 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소년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와 Yong Cho(2002)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유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관념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이문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국제학교 기숙사에 머무르게 하는 경우에는 이 점에 대한 사전 숙지가 있어서 부모와의 지지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 중 청소년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이들이 경험하는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특히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 중 자신의 민족적 배경과 관련된 사회적 스트레스,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가족적 스트레스는 우울감에 정적인 관계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에 대하여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 중 비자나 체류의 문제 및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이성친구와의 교제, 선생님들과의 갈등과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높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백서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통계에 의하면 일반 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 직업, 외모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성과의 교제는 매우 적게만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교사와의 갈등은 스트레스 요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인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보다는 이성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 교제가 한국의 일반적인 중등학교보다 자유롭고 교사와의 관계 또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서구의 문화적 특성이 잘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국제학교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는 우울감의 신체적 증상보다는 정서적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 일상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그 대처 방식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정신적 고통, 정신병리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 Compas, Orosan & Grant(1993)의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또한 서울임상심리연구소의 신현균(2002)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방식의 문제와 같은 청소년이 인식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증상보다는 이들의 낮은 자존감, 자살생각, 불행감, 동기 결여,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나, 부정적 정서와 상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감의 조절효과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낮은 우울감을 보이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처음 설계한 ‘부모의 지지가 낮은 우울감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한국의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부모님의 지지가 미치는 조절효과가 크다는 결과들이 많다 (이은희,2000; 옥정 2002). 그러나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의 지지보다는 선배와 같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인의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학교의 많은 수의 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환경적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의 수준이 우울감에 대해 보호변인으로 작용하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는 일치되는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한국 내 국제학교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학교교사나 정신건강전문가들은 국제학교 학생들의 부모동거여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의 현재 수준과 같은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위험 변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장기 체류의 경험이 있거나, 외국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자녀가 이문화수용 과정에서 겪게 될 심리적 고통과, 이들이 잠재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의와 동시에 여러 문화를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과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LeFromboise(1993)등의 견해와 같이 귀국 경우 부모님이 한국인일 가능성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학교에서는 현지의 언어와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본국의 말을 사용하고 본국의 생활습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문화학습의 아동의 방향은 '양문화에서의 유능성(bicultural competenc)' 일 것이다. 즉, 두 문화권의 언어 및 생활습관 모두에 대해 유능할 수 있도록 문화학습을 촉진시키고, 의사소통 기술 및 상호 에티켓을 배우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국제 학교 중 경기 지역의 한 곳에 국한하여 비교적 적은 표본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과 이문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우울감 이외의 다른 심리적 부적응 현상도 함께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질문지에 응하는 형태의 참여 방법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정보 중 가계 경제 상황, 부모 불화, 성이나 마약과 관련된 변인에서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의 안타까운 점은 처음 연구자가 배포한 180여개의 설문지중 이번 연구에서는 140부의 설문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양의 질문에 응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소년들의 주의집중력의 한계와 주변 친구들의 영향으로 질문 척도들에 무성의하게 답을 하거나 공란이 많아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들은 모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정체성의 확립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발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님들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이문화수용의 정도에 따른 적응 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실제로 Mena(1987)와 Padilla(1985)등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 이민 세대에 따라서도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문화를 경험했던 이민자들의 1세대들이 이후 세대들보다 더 큰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고된다. 또한 부모세대들의 성공적인 이문화수용의 경험은 대학생 자녀들의 낮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부모 세대들의 이문화 적응의 정도는 청년기의 자녀들의 이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이

문화수용의 수준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호자 및 부모님들의 문화적응 정도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 설문에 응하는 청소년들에게 주의 사항을 더욱 엄밀히 전달하고 현장을 잘 통제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경기도 외의 다른 국제학교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참여, 우울감 이외의 다른 심리적 부적응 척도를 함께 살펴보고 부모님의 이문화수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함께 배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 조경진 (1994). 정체성의 혼성적 구성에 관한 연구. 귀국한 외교관 자녀들의 삶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소래 (1997).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에 미치는 효과.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5, 209-247.
- 이미숙, 최영, 유지숙 (2000). 청소년의 신체증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최태일 (2001). 주한 외국인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란혜 (2001). 해외귀국안동의 이문화체험과 귀국 후 사회·심리적 적응. 대한 가정학회지, Vol. 39, No. 11
- 노충래 (2002). 재외국민특례입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13 , 87-120.
- 조권중 (2002). 서울거주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박영숙, 박광배, 최상진, 김주한, Antony Marsella (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Vol. 21, No. 2, pp 97-139
- 이현지, 남현주 (2003). 청소년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Vol. 10, 121-142

- 권효숙 (2003). 귀국아동의 학교적응 현상.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16, No. 2, pp 301-331
- 이인선 (2004). 이문화수용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진경, 양계민 (2004). 이문화수용 이론의 전개와 현황.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 23, 101-136
- 홍영란, 최금진 (2005). 경기도 외국인학교 현황 및 교육요구 분석. *미래교육연구*, Vol. 18, No. 1, pp 94-114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Vol. 22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Korea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2 No. 3 pp.47-73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 26, pp 79-110
- Redfield, R., Sarason, I.G, & Herkowitz, M.J.(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Rudmin, Floyd W (2003). Critical History of the Acculturation Psychology of Assimilation, Separation, Integration, and Marginaliz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7, 3-37

- Berry, J.W. (2005). Acculturation :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9, 697–712
- Cho, Y.B. (2002). Suicidal Ideation, Acculturation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Korean Adolescents.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박사학위 논문.
- Floyd Rudmin (2009). Construct, Measurements and Model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33, pp 106–123
- Yong–Beom Cho, Nick Haslam (2009). Suicidal ideation and distress among Korean adolescents living in the USA: The role of acculturation,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s*, in publishing.
- Sheldon Cohen, Lynn Underwood Gordon, Lynn Underwood, Benjamin H. Gottlieb, Fetzer Institute (2000).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Oxford University Press US.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 Wilcox, B. L. (1981). Social support,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test of the buffering hypothe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371–386.
- Veiel, H. O. F. & Baumann, U. (1992).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 Social Support.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Sarason, I. G., Sarason, B. R. (1991) General and Relationship-based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6, pp1028–1039
- M Robertson, M Line, S Jones, S Thomas (2000). International student, learning, environments, Perceptions.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Vol. 19, No. 1
- Padilla, Amado M.; Ruiz, Rene A. (1973). *Latino Mental Health : A Review of Literature*.
- Kandel, D. B., Raveis, V. H.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08.
- Hovey, J. D. (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exican–American 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6, 134–151.
- So–Youn Park, Kunsook Song (2008). Depression and Korean American Immigra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 22, No. 1, pp 12–19
- Joseph D. Hovey, Cheryl A. King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5, No. 9
- Malcolm Lewthwaite (1996). A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perspectives

- on cross-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Vol. 19, No. 2, pp. 167–185
- Aaron T. Beck, Robert A. Steer, Roberta Ball, William F. Ranieri (1999). Dimensions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in clinically depressed outpat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55, No. 1, pp. 117 – 128
- Mark A. Whisman, John E. Perez, Wiveka Ramel (2000). Factor structure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 Second Edition (BDI–II) in a student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56, No. 4, pp. 545 – 551
- Albert Gaw (1993). Culture, ethnicity, and mental illness. American Psychiatric Pub.
- Berman, A. L., & Jobes, D. A. (1991). Adolescent suicide :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drian Furnham, Stephen Bochner(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s, Taylor & Francis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Vol. 7, pp 177–182

ABSTRACT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School Adolescents in Korea

Yoon, Soo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nvolved youths attending international schools,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ir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nd to understand how their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social stress provided protective influence. For this purpose, an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variables that have been suggested in previous researches as being related to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maladaptation of foreign students and of immigrants from foreign countrie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a total of 140 students who were currently enrolled in international schools located in Gyeonggi-do. They responded to a survey concerning a total of 4 psychological indices.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data are as follows: (1) Regarding the factors determining the acculturative stress level of the youths attending the international schools, it was shown that their level of experiencing acculturative stress varied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leisure activities, period of living abroad and co-residence of parents. (2) Regarding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stres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was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1%. Especially, of the less important elements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tress and family stress that are related to ethical background were shown to exert a positive(+) influence on depression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3) Regarding the controlling effect of psychosocial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stress, it was shown that more depression was experienced by the those who had more social stress, such as the visa status problem and racial discrimination, which are less important elements of psychosocial stress, and more academic stress, such as school record and college entrance. And regarding the controll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stress, support from other people to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erson, which is a less important element of social support, was shown to

have a controlling effect of reducing depression.

Thu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social stress provide controlling effects on depression for the youths who were enrolled in international schools and who were experiencing acculturative stress. Therefore more support would have to be pursued in order to establish a broader social support network, including cultural adaptation programs for their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s through intimate human rel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follow-up research presents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other psychological maladaptation than the depression of the youths of international schools.

부 록

<설문지>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adolescents' psycho-social life in Korea. Do not write your name on this survey. Your answers will be kept strictly confidential and will solely be used for this research. Please give your responses as honest as possible when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Your responses will be used to develop better cultural adjustment program for young people like you.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survey or wish to discuss about your survey experience,
please call us at +82-2-557-8823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Demographic Information

Instruction: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Please fill in the blank and/or circle the number that best describes you.

0. Password ID (please choose 5 digit password that only you can identify)

(i.e. 34532)

1. Sex: 1) Female 2) Male

2. Age: 1) 14 2) 15 3) 16 4) 17 5) 18 6) 19

3. Place of Birth: _____ (country) _____ (City)

4. Grade: _____ 5. Average GPA: _____

5. Ethnicity: 1) Asian _____ 2) White _____ 3) African-American _____
4) Hispanic _____ 5) Other (please specify) _____

6. Specific Ethnic Background: 1) Korean _____ 2) Chinese _____
3) American _____ 4) Jewish _____ 5) Other specify) _____

7. Your religion: 1) Protestantism ____ 2) Catholicism ____ 3) Judaism ____
4) Islam ____ 5) Buddhism ____ 6) Other (please specify) _____

8. Are you regularly attending religious service at church, temple, or mosque etc?

1) Yes 2) Occasionally (on special days) 3) No 4) Don't have a religion

9. Are you involved in any other activities aside from going to church or your religious institution? (e.g. volunteering, part-time job etc.)

If yes, please describe what kinds of activities that you are involved

and how many hours you are spending a week for the activities.

1) Yes ,Activities _____ Hours a week _____

2) No

10. Please indicate in chronological order all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lived.

Age	Place			Age	Place		
	Korea	U.S.	Other (please specify)		Korea	U.S.	Other (please specify)
<i>Example.</i>							
5 years old	v			12 years old			Canada
Born				9 years old			
1 year old				10 years old			
2 years old				11 years old			
3 years old				12 years old			
4 years old				13 years old			
5 years old				14 years old			
6 years old				15 years old			
7 years old				16 years old			
8 years old				17 years old			

11. If you were not born in Korea,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In what age did you come to Korea? _____ old

12. How long have you been staying? _____ years _____ months

13. Have you ever lived without your parents?

- 1) Yes 2) No

If yes, how long? _____ years _____ months

14. What is your parents' monthly income?

1) Less than \$1,999 2) \$2,000 – \$4,999 3) \$5,000–\$9,999

4) more than \$10,000 5) Don't know

15.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you have?

1) 0 2) 1 3) 2 4) more than 3

16. What is your primary reason to study at your International School?

1) Bet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2) Parents' decision

3) Other (please specify): _____

17. Did you have any reasons or circumstances that led you and your parents to stay in Korea?

1) Parents' career issues

2) Parents' marital problems

3) No special circumstances and I just wished to stay in Korea.

4) I just followed my parents' decision

5) Other (specify) _____

18.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your current living status. Please read the statements carefully and answer yes or no to the following questions. If you have trouble answering for a certain statement, please describe your situation on the right column.

	Yes / No	Please describe
1.I am currently living alone.	Yes No	
2.I am living with my roommates.	Yes No	
3.I am living with an unmarried sibling(s).	Yes No	
4.I am living with a married sibling(s).	Yes No	
5.I am staying in the house of my relatives.	Yes No	
6.I am living with my guardian.	Yes No	
7.I am living with my mother.	Yes No	
A .If no, approximately how many days have you spent with your mother during the past 12 months?		_____ Days
8.I am living with my father.	Yes No	
A. If no, approximately how many days have you spent with your father during the past 12 months?		_____ Days

	Yes/No	Please describe

1) I have problems with visa or permanent residency (Korea).	Yes No	
2) I have to serve in the Army of Korea.	Yes No	
3) I have a Korean citizenship.	Yes No	
4) I am a U.S. citizen or have a permanent residency	Yes No	
If not, please specify, _____		
5) My mother is a legal resident or citizen of _____ (country)?		
6) My father is a legal resident or citizen _____ (country)?		
15) My visa type is _____		

19. Medical issues

1) Any operations? Yes / No

If yes, Please specify,

2) Any hospitalizations? Yes / No

If yes, Please specify,

3) Any allergies? Yes / No

If yes, Please specify,

4) Any other medical problems? Yes / No

If yes, Please specify,

5) Family medical problems? Yes / No

If yes, Please specify,

6) Any dietary restriction? Yes / No

If yes, Please specify,

PSQ (Psychosocial Stressor Questionnaire)

Instruction: Below is a list of problems people sometimes have. Please read each one carefully and **circle** the number to the right that best describes **How much that problem has made you feel stressful during the past 7 days including today**. **Circle only one number for each problem and do not skip any item.** Please use the space below for addition stressor that you are experiencing.

Ex: (The following problem/issue) makes me feel stressful.	Not stressful	Somewha t stressful	Moderately stressful	Quite a bit stressful	Extremel y stressful
1.Current academic performance	0	1	2	3	4
2.Collegeadmission	0	1	2	3	4

3.Relationship with friends	0	1	2	3	4
4.Relationship with your boy/girl friend	0	1	2	3	4
5.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0	1	2	3	4
6.Parental discord	0	1	2	3	4
7.Economic difficulties	0	1	2	3	4
8.Trouble with siblings	0	1	2	3	4
9.Problems with teachers	0	1	2	3	4
10.Legal issues	0	1	2	3	4
11.Sexual problems	0	1	2	3	4
12.Drug problems	0	1	2	3	4
13.Discrimination	0	1	2	3	4
14.My appearances (face, body, clothing etc)	0	1	2	3	4
15.Language related issues	0	1	2	3	4
16.Cultural adjustment issues	0	1	2	3	4
17. etc._____	0	1	2	3	4
18. etc._____	0	1	2	3	4
19. etc._____	0	1	2	3	4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for Perceived Social Support)

Instruction: The following statements describe different things people do and feel about social support. Please tell me how mu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se statements and circle the number that best describes your intention.

1	2	3	4	5	6	7
Very strongly disagree	Disagree	Slightly disagree	Neutral	Slightly agree	agree	Very strongly agree

1. There is a special person who is around when I am in need	1	2	3	4	5	6	7
2. There is a special person with whom I can share my joys and sorrows.	1	2	3	4	5	6	7
3. My family really tries to help me.	1	2	3	4	5	6	7
4. I get the emotional help and support I need from my family.	1	2	3	4	5	6	7
5. I have a special person who is a real source of comfort to me.	1	2	3	4	5	6	7
6. I can talk about my problems with my family.	1	2	3	4	5	6	7
7. There is a special person in my life who cares about my feelings.	1	2	3	4	5	6	7
8. My family is willing to help me make decision	1	2	3	4	5	6	7
9. My teachers really try to help me.	1	2	3	4	5	6	7

10. I can talk about my problems with my teachers	1	2	3	4	5	6	7
11. I get the emotional help and support I need from my teachers.	1	2	3	4	5	6	7
12. My teachers are willing to help me make decision	1	2	3	4	5	6	7
13. I have friends with whom I can share my joys and sorrows.	1	2	3	4	5	6	7
14. I can talk about my problems with my friends.	1	2	3	4	5	6	7
15. My friends really try to help me.	1	2	3	4	5	6	7
16. I can count on my friends when things go wrong.	1	2	3	4	5	6	7

11. Many people have stereotypes about my culture or ethnic group and treat me as if they are true.	1	2	3	4	5
12. I don't feel at home.	1	2	3	4	5
13. People think I am unsociable when in fact I have trouble communicating in English.	1	2	3	4	5
14. I often feel that people actively try to stop me from advancing.	1	2	3	4	5
15. It bothers me when people pressure me to assimilate.	1	2	3	4	5
16. I often feel ignored by people who are supposed to assist me.	1	2	3	4	5
17. Because I am different I do not get enough credit for the work I do.	1	2	3	4	5
18. It bothers me that I have an accent.	1	2	3	4	5
19. Loosening the ties with my country is difficult.	1	2	3	4	5
20. I often think about my cultural background.	1	2	3	4	5
21. Because of my cultural and/or ethnic background, I feel that others often exclude me from participating in their activities.	1	2	3	4	5
22. It is difficult for me to "show off" my family.	1	2	3	4	5
23. People look down upon me if I practice customs of my culture.	1	2	3	4	5
24. I have trouble understanding others when they speak.	1	2	3	4	5

BDI-II (Beck Depression Inventory – II)

Instructions: This questionnaire consists of 21 groups of statements.

Please read each group of statements carefully and then pick out the one statement in each group that best describes the way you have been feeling during the past 2 weeks, including today. Circle the number beside the statement you have picked. If several statements in the group seem to apply equally well, circle the highest number for that group. Be sure that you do not choose more than one statement for any group, including Item 16 (Changes in Sleeping Pattern) or Item 18 (Changes in Appetite).

<p>1. Sadness</p> <p>0 I do not feel sad.</p> <p>1 I feel sad much of the time.</p> <p>2 I am sad all the time.</p> <p>3 I am so sad or unhappy that I can't stand it.</p> <p>2. Pessimism</p> <p>0 I am not discouraged about my future.</p> <p>1 I feel more discouraged about my future than I used to be.</p> <p>2 I do not expect things to work out for me.</p> <p>3 I feel my future is hopeless and will only get worse.</p> <p>3. Past Failure</p> <p>0 I do not feel like a failure.</p> <p>1 I have failed more than I should</p>	<p>6. Punishment Feelings</p> <p>0 I don't feel I am being punished.</p> <p>1 I feel I may be punished.</p> <p>2 I expect to be punished.</p> <p>3 I feel I am being punished.</p> <p>7. Self-Dislike</p> <p>0 I feel the same about myself as ever.</p> <p>1 I have lost confidence in myself.</p> <p>2 I am disappointed in myself.</p> <p>3 I dislike myself.</p> <p>8. Self-Criticalness</p> <p>0 I don't criticize or blame myself more than usual.</p> <p>1 I am more critical of myself than I used to be.</p> <p>2 I criticize myself for all of my faults.</p> <p>3 I blame myself for everything bad that happens.</p>
---	---

<p>have.</p> <p>2 As I look back, I see a lot of failures.</p> <p>3 I feel I am a total failure as a person.</p> <p>4. Loss of Pleasure</p> <p>0 I get as much pleasure as I ever did from the things I enjoy.</p> <p>1 I don't enjoy things as much as I used to.</p> <p>2 I get very little pleasure from the things I used to enjoy.</p> <p>3 I can't get any pleasure from the things I used to enjoy.</p> <p>5. Guilty Feelings</p> <p>0 I don't feel particularly guilty.</p> <p>1 I feel guilty over many things I have done or should have done.</p> <p>2 I feel quite guilty most of the time.</p> <p>3 I feel guilty all of the time.</p>	<p>9. Suicidal Thoughts or Wishes</p> <p>0 I don't have any thoughts of killing myself.</p> <p>1 I have thoughts of killing myself, but I would not carry them out.</p> <p>2 I would like to kill myself.</p> <p>3 I would kill myself if I had the chance.</p> <p>10. Crying</p> <p>0 I don't cry anymore than I used to.</p> <p>1 I cry more than I used to.</p> <p>2 I cry over every little thing.</p> <p>3 I feel like crying, but I can't.</p>
---	--

<p>11. Agitation</p> <p>0 I am no more restless or wound up than usual.</p> <p>1 I feel more restless or wound up than usual.</p> <p>2 I am so restless or agitated that it's hard to stay still.</p> <p>3 I am so restless or agitated that I have to keep moving or doing something.</p> <p>12. Loss of Interest</p> <p>0 I have not lost interest in other people or activities.</p> <p>1 I am less interested in other people or things than before.</p> <p>2 I have lost most of my interest in other people or things.</p> <p>3 It's hard to get interested in anything.</p> <p>13. Indecisiveness</p> <p>0 I make decisions about as well as ever.</p> <p>1 I find it more difficult to make decisions than usual.</p> <p>2 I have much greater difficulty in</p>	<p>17. Irritability</p> <p>0 I am no more irritable than usual.</p> <p>1 I am more irritable than usual.</p> <p>2 I am much more irritable than usual.</p> <p>3 I am irritable all the time.</p> <p>18. Changes in Appetite</p> <p>0 I have not experienced any change in my appetite. _____</p> <p>1a My appetite is somewhat less than usual</p> <p>1b My appetite is somewhat greater than usual. _____</p> <p>2a My appetite is much less than before.</p> <p>2b My appetite is much greater than usual. _____</p> <p>3a I have no appetite at all.</p> <p>3b I crave food all the time.</p> <p>19. Concentration Difficulty</p> <p>0 I can concentrate as well as ever.</p> <p>1 I can't concentrate as well as usual.</p> <p>2 It's hard to keep my mind on anything for very long.</p> <p>3 I find I can't concentrate on anything.</p> <p>20. Tiredness or Fatigue</p> <p>0 I am no more tired or fatigued than</p>
---	---

<p>making decisions than I used to. 3 I have trouble making any decisions.</p> <p>14. Worthlessness 0 I do not feel I am worthless. 1 I don't consider myself as worthwhile and useful as I used to. 2 I feel more worthless as compared to other people. 3 I feel utterly worthless.</p> <p>15. Loss of Energy 0 I have as much energy as ever. 1 I have less energy than I used to have. 2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do very much. 3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do anything.</p> <p>16. Changes in Sleeping Pattern 0 I have not experienced any change in my sleeping pattern. 1a I sleep somewhat more than usual. 1b I sleep somewhat less than usual. 2a I sleep a lot more than usual. 2b I sleep a lot less than usual. 3a I sleep most of the day. 3b I wake up 1-2 hours early and can't get back to sleep.</p>	<p>usual. 1 I get more tired or fatigued more easily than usual. 2 I am too tired or fatigued to do a lot of the things I used to do. 3 I am too tired or fatigued to do most of the things I used to do.</p> <p>21. Loss of Interest in Sex 0 I have not noticed any recent change in my interest in sex. 1 I am less interested in sex than I used to be. 2 I am much less interested in sex now. 3 I have lost interest in sex completely.</p>
---	--

If you wish to talk about your survey experience, please call and leave a message at 02-557-8823. If you are now feeling depressed and/or suicidal, don't hesitate to go to your guidance counselor or other professionals at a hospital or crisis intervention center.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